

浮屠의舍利孔으로서는 아직 이렇게 큰 것을 보지 못하였다.

全高 一三三二(cm) 地臺石徑 九〇 塔身 둘레 上端 一九〇 下端 一八四 最大 二二三 塔身高 九二

이 無名 浮屠의 製作 手法 和 造成 年代는 高麗 中葉 佛教 藝術의 發達 和 함께 浮屠 藝術이 極度로 발달하면서 이와 같이 浮屠 表面을 裝飾하는 大作을 남겼으리라 고 生覺한다. 더구나 大圓寺는 金山寺와 不過 十里 밖 에 안되는 가까운 곳이므로 金山寺의 石鍾 六角多層石塔 等の 作品에 比하여 뒤떨어진 作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高麗 中葉 金山寺를 比 못한 이 地方의 浮屠로서는 代表的인 作品으로 믿어진다.

二、五層石塔

法堂後面 一〇m 地點에 安置된 이 五層石塔은 百濟系統의 通式을 이 어 받은 型式으로서 中間에 倒壞된 것을 復元한 것으로서 三層과 二層 의 塔身이 바뀌고 二層 屋蓋石이 缺失되었다.

單層基壇을 갖추고 相輪部는 露盤부터 缺失되어 있다. 正方形 地臺 石은 角形받침에 基壇을 놓았으며 基壇面石은 六枚石으로 前面石이 二 枚인데 한개가 缺失되어 基壇內部를 볼 수 있다. 隅柱는 左右面石으로 代置되었고 그 以上 塔身에는 없다. 甲石은 一枚石으로 角形받침으로 塔身을 받고 있으며 塔身은 各層마다 形態가 不規則의 形으로 되어 있는데 二層塔身과 三層屋蓋石、三層屋蓋石과 四層塔身이 各各同一石이다. 初 層塔身 前面에 佛像이 아닌 文樣이 있으나 식별하기 어렵고 屋蓋石은 各層마다 三段의 받침이 있다.

이 塔이 現在 不規則하게 서 있는 原因은 中間에 倒壞된 탓이다. 대체로 塔의 均衡이 未備하며 屋蓋가 厚肉하고 轉角이 愚鈍하여 輕快 感을 주지 못한다. 年代는 麗末까지 는 내려오지 않을 줄로 推定된다. 實測值는(cm)

基壇部 地臺石 長 一三一 基壇面石 高 四〇 幅 五五 甲石 長 九七 厚 九

塔身部

高 幅 屋蓋長

第一層 四〇 五三 八六

第八卷 第十號 通卷八十七號

第二層	八·五	四五	七〇
三	一三	四八	六七
四	六	三七	五五
五	六	三五	四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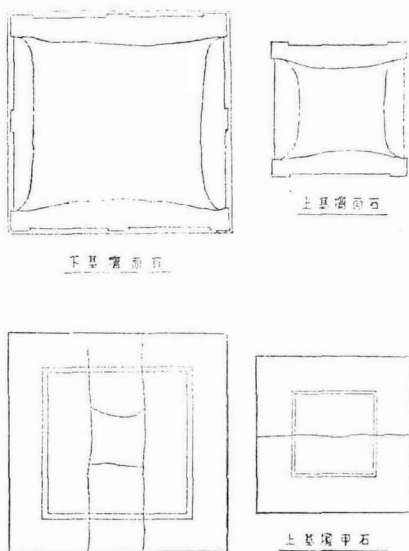
寶泉寺址三層石塔 修理後記

孟 仁 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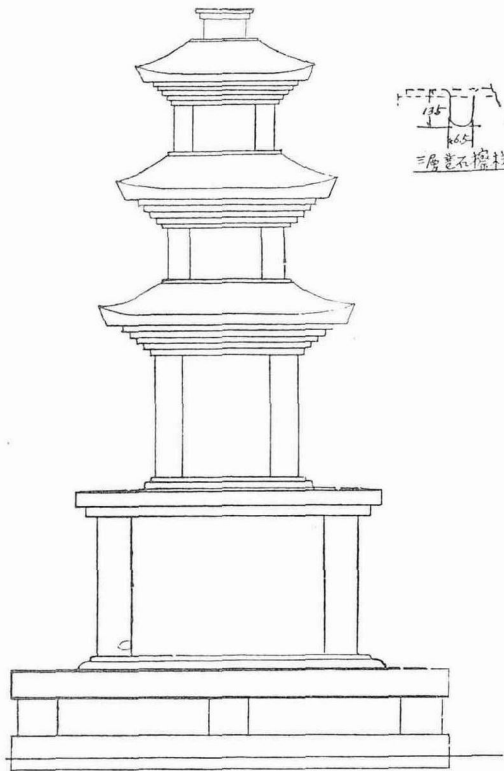
今年 六月 舍利遺物盜取行爲 때문에 被害를 받은 慶南 宜寧所在 寶泉寺 址 三層石塔의 修理復舊가 있었다. 塔은 二層身石까지가 地面으로 倒壞 되는 큰 被害를 입었으며 그 直後에 있는 文化財管理局의 公式調査에 이 어 六月 十四日부터 同 二十五일까지 約 十日間 修理工事が 계속되었다. 工事에는 崔淳雨 委員과 筆者가 參加하였다. 倒壞로 인한 被害範圍는 大略 다음과 같다.

- 下基壇甲石.. 東南隅角部에 九五cm, 六二cm, 七二cm 邊長의 三角形으로 切斷되고 이로 因한 附隨의 破損(三片)이 생긴다.
  - 二層身石.. 底裏 二個所에 約 四cm, 一一x六cm 程度의 擦過傷이 났으나 破片은 粉碎됨.
  - 三層屋蓋石.. 西便침하리리 및 一部 落水面에 最少 約 三cm長, 最大 約 三四cm長 等 約 二〇片의 破片傷을 받음. 西北隅角部는 各邊長 七九cm, 六六cm, 五一cm의 三角形으로 切斷되었고 切斷部는 層級받침刻 第二段에 미침.
  - 三層身石.. 크게 半으로 切斷되었으며 그에 따른 破片은 大小 約 四〇餘片 程度로 全破되었음.
  - 三層屋蓋石.. 침하리리 및 層級받침刻에 九個所의 僅少한 擦過傷을 입음.
- 破損範圍는 以上과 같으나 石材는 下基壇 甲石에 落下하거나 落下한

때의 先後에 따라서 激突했기 때문에 復元接着을 不可能한 것이 많았다. 특히 甚했던 것은 三層身石이었으며 四〇餘個의 大小破片中 約二〇片만이 原位置에 接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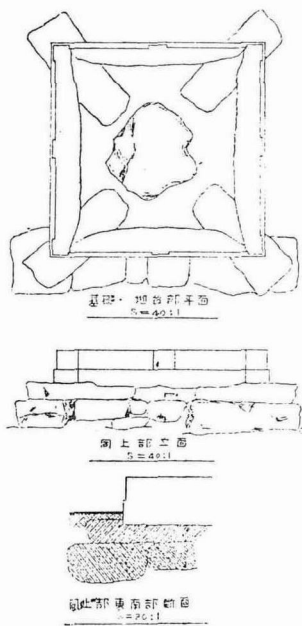
接着劑는 DEVECO Z E 튜브(美國産)이며 身石破片의 接着은 가장 힘드는 일이었다. 當初이 身石은 新造할 豫定이었으나 接着에 의한 外形의 復舊가 거의



寶泉寺址三層石塔立方面 S=20:1

可能했고 屋蓋石荷重에 대 한 支撐力도 充分이었으며 原材에 의한 再組立이 可能한 것으로 되었다.

寶泉寺址三層石塔



再組立이 可能한 것으로 되었다.

지금까지 調査 確認된 바로는 基壇以上 三層身石에 이르기까지 舍利藏置를 爲한 特殊構造나 舍利孔은 없었고 三層屋蓋石에 別圖와 같은 擦柱孔이 있을 뿐이었다. 다만 上基壇內 積心土石中에서 小銅佛과 光背形(火焰形) 透作銅片, 土塔等이 發見되어 다른 小規模石塔에서와 같이 基壇雜石中에 板石을 놓고 小佛像을 安置한 形式을 取한 것이 아닌가 推測케 한다. 이 基壇石內의 遺物은 攪亂되어 있었음으로 風說대로 日政때 이 미 盜取犯의 손이 미쳤던 듯 생각된다. 이와 같은 安易한 藏置形式은 다른 例와 함께 考察의 對象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나 아직 整理가 안 되었음으로 여기서는 比較나 詳說을 省略한다.

本石塔中 가장 特殊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下臺面石下의 地臺基礎이다. 別圖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下臺面石 밑에는 四隅에 各各 두 개의 面石골이 設될 수 있도록 內側平面을 直角面으로 作아만 自然板石을 고여 下臺面石의 散開를 豫防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地面의 沈下나 變態로 因하여 下臺面石이 無秩序하게 外側으로 散開되어 塔倒壞의 原因을 이루고 있으나 여기서는 그와 같은 根本的 要因을 가장 效果 있게 防止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圖面參照). 이와 같은 倒壞原因의 防除는 앞으로 古塔修理에 있어 考慮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塔의 形式, 規格, 基壇構造等은 圖面을 添付하였으므로 說明을 省略한다.